

# 유해 수색 재개...제주항공 참사 진실 규명될까

### 둔덕 주변 5mm 거름망으로 정밀조사...중단 35일만 압수수색·책임규명 수사도...유가족協 “원인 밝혀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중단됐던 희생자 유해 수색 작업이 35일 만에 재개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추가 유해 수색 작업이 시작됐다. 수색은 지난날 콘크리트 둔덕 인근 토양에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된 둔덕 주변 476㎡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간 전문업체 작업자 8명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지표면 아래 30cm 깊이까지

토양을 채취하고, 특수 장비를 이용해 흙과 유해 추정 물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벌인다. 기존 가로·세로 8mm 체망 대신 5mm 원형 거름망이 장착된 전동체 2대를 투입해 보다 정밀한 수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국은 오염 구역 수색과 정화 작업을 약 2주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수색은 오염 구역과 비오염 구역을 동시에 조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간 전문업체가 카드뮴 오염이 확인된 콘크리트 둔덕 주변을 집중 수색하는 동안, 오염되지 않은 공황 활주로 담장 외곽

과 통제구역 철조망 주변에서는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군 유해발굴감식단이 별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참사 당시 폭발 충격과 기체 파편 비산 범위를 고려할 때 사고 지점에서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와 유류품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사기관과 군은 공항 경제지역과 배수로, 수몰 지대, 철조망 주변 등을 중심으로 정밀 탐문과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유해 수색이 재개된 가운데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기존 수사 내용을 보강하고 사고 발생 과정과 안전관리

실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미 지난달 피의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을 검찰에 공유한 상태다.

수사의 핵심은 무안국제공항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지지용 콘크리트 둔덕 설치 과정과 안전관리 책임 여부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둔덕 설치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 추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다만 최종 책임 규명까지는 다소 시간

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철위 역시 조종사 대응과 항공기 상태, 공항 시설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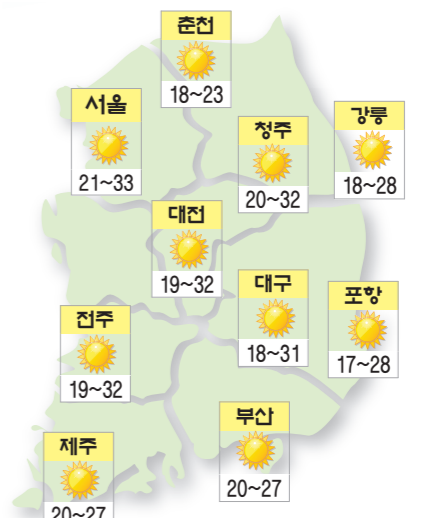
앞서 지난 4월 1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진행된 무안공항 일대 수색에서는 유해 추정 물체 1446점이 수거됐다. 이 가운데 233점에 대한 유전자 감식 결과 195점이 희생자 64명의 유해로 확인됐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상 여건으로 수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도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맑음 05:18    🌙 달맞이 05:56  
☁️ 맑음 19:49    🌧️ 달맞이 21:22



광주	☀️	19~31
목포	☀️	20~29
여수	☀️	19~28
순천	☀️	16~30
구례	☀️	16~30
광주	☀️	19~29
신도	☀️	19~28
죽산도	☀️	18~25
진남	☀️	18~28
진도	☀️	18~28

목포	미물(고)	02:58 / 14:53
	샘물(저)	08:15 / 20:12
여수	미물(고)	09:43 / 22:28
	샘물(저)	03:45 / 15:45

## 광산구, 갑질 근절 조직문화 ‘명문화’

### 예방·대응 지침 시행...간부 공직자 의무교육

광주 광산구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광산구는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대응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낡은 조직 관행과 갑질, 괴롭힘 등 직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적 실천에 머물렀던 갑질 예방 활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조직 원칙으로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 소속 공직자와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 등이다.

지침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인격권 침해, 회식 참석 및 음주 강요 등 금지 행위를 8개 유형으로 구분해 명시했다. 일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요소를 예

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도 담았다.

구는 앞으로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역명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문화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과 교육,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접수와 조사·상담을 담당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원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필요 시 신속한 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도 지침에 포함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lh4415@gwangnam.co.kr



**광주 서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15일 오전 광주 서구청 민방위안전체험센터에서 열린 응급처치 및 여름철 위기 대비 안전보안관 안전교육에 참석한 교원 등 광주시안전보안팀봉사단 연합회장과 서구 안전보안관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광주 동구, 전국 최초 ‘AI종량제 배출함’ 특허

### 머신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 기술...직접 개발 참여 ‘동구라미 온’ 연계...주민 참여 자원순환체계 구축

광주 동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쓰레기 배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AI 종량제배출함’의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이번 특허는 동구 역사상 첫 특허 등록 사례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생활밀착형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특허를 출원한 이후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 지난

2022년부터 아이오티플러스㈜와 협력해 기술개발에 착수했으며, 5단계 개발 과정을 거쳐 AI 종량제배출함을 완성했다.

AI 종량제배출함은 머신러닝 기반 이미지 분석기술을 활용해 종량제봉투를 인식한 경우에만 투입구가 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동구가 운영하는 자원순환 앱 ‘동구

라미 온’과 연계해 종량제봉투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고, 배출함 이용 주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AI 종량제배출함은 2024년 4월 산수동 친환경자원순환센터 개관과 함께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한 ‘자원순환 생활실험’을 통해 사용 편의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받았다.

동구는 아이오티플러스㈜와의 협약을 통해 특허권 지분을 확보하고, 주민 대상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기술 확산과 보급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의미·가치 조명

### 18·24일 전문가 주제 강연

지난 5월18일 문을 연 옛 전남도청의 복원 의미를 되짚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오는 18·24일과 7월9일 옛 전남도청 별관 3층 세미나실에서 ‘다시 돌아온 옛 전남도청, 복원의 의미’ 강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전문가들이 다시 돌아온 옛 전남도청 복원 의미를 이야기한다.

18일에는 최호근 고려대 사학과 교수가 ‘기억투쟁에서 기념문화로의 이행’이란 주제로 강좌를 연다.

24일에는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가 ‘우리에겐 5·18은 무엇이었나?’를 발표한다.

7월9일에는 정찬영 동명병원 대표원장이 ‘옛 전남도청 복원과 트라우마 치유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강연한다.

참여 신청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누리집에서 강좌별 7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기아 챔피언스필드 친환경 약속 ‘공염불’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다화용기 사용 비중이 전국 프로야구장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며 ‘친환경 야구장’ 조성 약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이 15일 발표한 전국 프로야구장 9곳의 다화용기 사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다화용기 도입률은 9.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야구장 내 351개 입점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시민들이 공동 조사표를 활용해 현장을 점검했다.

조사 결과 기아챔피언스필드는 전체 매장의 90.3%가 다화용기를 도입하지 않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도입 비율을 기록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관람객이 경기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셈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에서도 챔피언스필드 내 31개 식음료 매장 가운데 다화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개별 다화용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포장 비닐 전용 배출함이나 명

확한 분리배출 안내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SSG 랜더스의 홈구장인 SSG 랜더스필드는 다화용기 도입률 50%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KT 위즈파크(38.2%), 잠실야구장(34.7%)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과가 2023년 KBO와 각 구단이 환경부와 체결한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의 성과가 현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조사 대상 351개 매장 가운데

### 다화용기 도입률 9.7%...전국 최하위권 KBO·구단 협약 3년째에도 ‘제자리걸음’

349개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확인돼 사용률은 99.4%에 달했다. 다화용기만 사용하는 매장은 단 1곳(0.3%)에 불과했으며, 전체 일회용품 사용률도 97%를 넘었다.

품목별로는 음식 용기와 수저류 등 식음료 판매 전방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음식 용기·그릇은 228개 매장, 플라스틱 컵은 177개 매장, 종이컵은 108개 매장에서 사용됐고, 젓가락·포크·피저류 등 일회용 식기도구 사용 매장은 233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화용 음식 용기·그릇은 49개 매장, 다

화용 컵은 61개 매장에서만 확인됐다.

부실한 분리배출 체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함은 대부분 설치돼 있었지만 종이류와 비닐류, 투명 페트병, 음식물 잔반 등을 세분해 배출할 수 있는 체계는 부족했다. 수거함이 설치돼 있어도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배출 과정에서 혼합 배출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운동연합은 KBO와 각 구단이 구장별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처리방식, 일회용품 사용량, 다화용기 도입률

및 회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단 예산을 활용한 상시 다화용기 운영, 입점 매장 계약 시 일회용품 감축 기준 반영, 음수대 설치, 품목별 분리배출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프로야구 관람객이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야구장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야구장에서 다화용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분리배출하는 경험이 일상화된다면 자원순환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KBO와 구단들이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등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